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 307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광활한 붉은 대륙, 무한 가능성을 품다

리비아 미수라타 발전소 (1982~1990)

Photo News

현대건설이 아프리카 대륙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80년 리비아 라스라누프 항만공사를 수행하면서다. 이후 데르나 도로공사, 미수라타 발전소 등 리비아 진출 2년 만에 11억 달러가 넘는 수주액을 올리며 화려한 신고식을 마친 현대건설은 이후 튀니지,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우간다 등에서 주요공사를 수행하며 진출 영역을 확대해 왔다. 기아와 분쟁으로 혼돈의 대륙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는 미지의 땅 아프리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현대건설이 이곳에서 만들어낼 변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mbracing the possibilities of the vast continent

Hyundai E&C entered the African Continent in 1980 when the company constructed the Ra's Lanuf Airport in Libya. In two years after making inroads into the country, the builder received orders worth over 1.1 billion dollars to build the road infrastructure in Darnah and the Misurata Power Plant. The outfit has since expanded its business area in Africa by conducting major construction projects in Tunisia, Egypt, Côte d'Ivoire, Algeria and Uganda. Africa is still considered as the unknown territory stricken by poverty and strife. Change beings now in Africa where Hyundai E&C looks to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

리비아 라스라누프 항만공사 (1980~1983)

튀니지 종합경기장 (1997~1999)

현대건설 여걸들, 우승 향한 청신호 켰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 선두 '블로킹의 여왕' 양효진, 올스타 최다 득표로 '대세 입증'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기세가 무섭다. 지난 11월 25일 IBK기업은행을 풀세트 접전 끝에 누르고 2015-2016 NH농협 V리그 2라운드 단독 선두를 지켜낸 현대건설이 3라운드에서도 선두를 유지하며 우승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25-21 39-37 25-17)으로 승리를 거뒀다. 현대건설은 1세트부터 강한 공격으로 인삼공사를 몰아붙였다. 2세트에서는 동점을 허용하는 등 고전했지만 양효진(22점), 에밀리(19점), 황연주(16점) 트리오가 57점을 합작, 2위 흥국생명과의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질주했다.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가 공격에 성공한 뒤 팀 동료와 환호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계속된 상승세에는 견고한 팀워크와 범실을 줄인 안정된 경기 운영이 큰 몫을 했다. 여자부 6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은 범실을 기록 중인 현대건설은 리시브가 좋은 에밀리와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정미선의 가세로 수비가 견고해졌고, 이는 자연스레 활발한 공격으로 이어져 황연주와 양효진의 폭발적인 득점이 살아났다는 평가다. 양철호 현대건설 배구단 감독은 "용병인 에밀리가 제 몫을 다하고 있고, 황연주와 한유미, 양효진 등 베테랑 선수들이 짜임새 있는 경기를 유도하는 등 선수들 간의 호흡이 좋다"며 "지금의 좋은 기세를 유지해 이번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양효진 선수는 지난 9일 발표된 V리그 올스타 투표에서 4만130표를 얻어 최고 인기 선수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는 한국배구연맹(KOVO)이 오는 2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릴 올스타전에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모바일)를 통해 실시한 것으로, 양 선수는 총 5만8671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에서 남녀 올스타 중 최다 득표를 차지해 부동의 인기를 과시했다. 양효진 선수는 2라운드 여자부 MVP에 이어 3시즌 연속 올스타전 최다 득표 선정되는 등 올 시즌 눈부신 활약으로 현대건설 배구단의 승리를 견인하고 있다.

Suwon Hyundai Hillstate Women Volleyball Team got the green light for championship

Hyundai E&C Hillstate Women Volleyball Team is on a roll. Hyundai Hillstate beat IBK Altos in the full-set second round of the 2015-2016 V-League NH Nonghyup on November 25 and maintained the top spot by winning the third round on December 12.

Hyundai Hillstate posted a 3-0 (25-21, 39-37, 25-17) sweep of KGC Pro VC in Suwon Gymnasium on December 12. Hyundai E&C opened the first set with strong attacks. During the second set, the two teams were tied once, but a trio of Hyundai Hillstate players scored 57 points to take up the running.

Together with Emily Harton (19 points) and Hwang Youn-joo (16 points), Yang Hyo-jin scored 22 points to widen the gap with Heungkuk Life Pink Spiders the second-place team.

A series of victory are thanks to Hyundai Hillstate volleyball team's strong teamwork and stable game operation. Out of six women's volleyball clubs, Suwon Hyundai Hillstate made the least number of mistakes this season. Emily Harton, a good receiver, and Jung Mi-sun who recovered from knee injury are playing an important part in keeping the defense solid, leading to active attacking and then enabling Hwang Youn-joo and Yang Hyo-jin to create high scoring chances.

Meanwhile, Hyundai Hillstate big blocker Yang received the most votes with 40, 130 votes, the most in both men's and women's leagues, topping the All-Star ballot on December 9. Yang has been the top vote-getter three seasons in a row.

NEWS

- 현대건설, 연말 수상 러시
- 힐스테이트 위례, 창원~부산 간 도로 준공
- 현대건설 컨소시엄, 전주 효자 재개발 시공사 선정

그룹사 소식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누적 방문 고객 20만 명 돌파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5월 개관한 브랜드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지난 2일 누적 방문 고객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현대차의 새로운 '고객 소통 공간'으로,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전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을 반영한 '자동차 문화공간'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통해 현대차 브랜드와 자동차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CSV포터상 프로젝트 상생성 부문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일 서울 광장동 소재의 워커힐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2회 CSV포터상' 시상식에서 상생성 부문을 수상했다. CSV포터상은 산업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가 CSR보다 한 차원 높은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대표 CSV 사업인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로 공유가치 창출 효과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재해구호주택을 개발하고 재난위기 가정의 주거문제를 돕는 활동이다.

현장·부서 소식

PRM사업부, 품질 향상·수주리스크 관리 워크숍 실시

PRM사업부가 지난달 27일 외주협력사 품질 워크숍과 수주심사위원 워크숍을 각각 열었다. 현대문화센터에서 열린 외주협력사 품질 워크숍은 170개 협력사 관계자 등 총 492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혁신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PRM사업부는 협력사의 품질의식을 높이고 우리 회사와 협력사 간 소통과 동반성장을 위해 매년 품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PRM사업부는 같은 날 서울 대림동 기술교육원에서 수주심사위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수주심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개발본부, '한경 다산기술상' 수상

연구개발본부가 8일 발표된 '제24회 한경 다산기술상'에서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경 다산기술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연구인력에 수여하는 상으로, 1992년 제정됐다. 연구개발본부는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자체 보유한 100개 이상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58개를 적용한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해 실증 과정을 거쳐 신뢰도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현대건설, 연말 수상 러시

매경 토목건축기술대상·헤경 그린주거문화대상 등

우리 회사가 굵직한 수상 소식을 잇따라 전하며 건설 종가(宗家)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제11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3월 준공한 'LH본사 신사옥'으로 건축 부문 종합대상을 받았다. 'LH본사 신사옥'은 풍향을 고려해 유선형으로 설계된 데다 고효율 설비, LED 조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우리 회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헤경 그린주거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지난 2일에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주최 '제8회 그린하우징어워드' 시상식에서 '창원 감계힐스테이트 4차'가 그린디자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왼쪽) 지난달 30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 모습(오른쪽이 건축사업본부장 김정철 부사장). (오른쪽) 지난 2일에 열린 '제8회 그린하우징어워드' 시상식 후 기념촬영 모습(왼쪽에서 둘째가 건축설계실장 최현재 상무보).

'창원감계힐스테이트 4차'는 지하주차장에 지능형 주차위치정보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보행자의 동선에 따라 불빛이 들어와 안전하게 출구로 안내하는 S-IT LED 조명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주목받았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집안 내부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편의시스템 등 스마트시스템이 호응을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지난달 27일 건설경제가 주최한 '2015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대상인 국토부장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 회사는 2007년 말 상생경영을 선포하고 2010년부터 상생협력팀을 운영하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inning a series of awards at the end of the year

Our company is solidifying its position as Korea's primary builder by receiving prestigious awards.

The new LH building constructed by our company was awarded the grand prize in the category of architecture at the 11th Civil & Architectural Technology Award organized b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on November 30. Our compan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LH Tower in March this year. It was well received in that the streamlined design allows for direction of the wind and high efficiency facilities, LED lighting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were introduced.

Our company also won the grand prize at the 15th Green Housing Culture Awards organized by Herald Biz on November 30. Changwon Gamgye Hillstate IV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category of green design at the 8th Green Housing Awards organized by Hankook Ilbo on December 2.

In addition, our company was awarded with the prize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recognition of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November 27.

힐스테이트 위례 전경.

창원~부산 간 도로 전경.

힐스테이트 위례, 창원~부산 간 도로 준공

우리 회사가 시공한 힐스테이트 위례가 3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준공됐다. 이 현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4층 14개 동 621세대 규모다.

힐스테이트 위례는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KTX수서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및 지방으로의 이동이 더욱 수월해지는 등 편리한 교통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녹지면적이 50% 이상이며 산책로와 중앙광장도 마련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한편, 지난 5일 우리 회사가 2009년 2월 착공한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했다. 이 현장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중 3단계 구간으로 율하~녹산영업소~미음~세산나들목을 잇는 5.48㎞의 왕복 4차로 도로를 짓는 공사다.

이번 개통으로 만성적인 체증을 겪던 창원터널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세산교차로에서 가락IC 구간의 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전주 효자 재개발 시공사 선정

우리 회사가 지난 5일 열린 전주시 효자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사로 낙점됐다. 금호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의 공사금액은 전체 약 2200억원이다(당사분 약 1184억원).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번지 일대에 아파트 12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효자동과 연계해 전주 권역에 힐스테이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7개월.

한빛 3,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한빛 3,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시공용역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이 공사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대에 위치한 1000㎿급 한국표준형원전(OPR1000) 증기발생기 4기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가 1995년에 시공해 사업운전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다.

총 공사금액은 846억원,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7개월이다.

한빛 3, 4호기 전경.

4/4분기 무재해 달성 포상 현장 발표

우리 회사가 7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2015년 4/4분기 무재해 달성 포상 현장'을 공개했다.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한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을 비롯해 UAE 사브 해상 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무재해 5배수), UAE 미르파 담수복합화력발전소 공사(무재해 2배수), 인화·강화도로공사(무재해 2배수) 등 총 4개 현장에 표창장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모바일 안전 애플리케이션 개선 ▶위험작업 플래시 교안 개발 ▶경영진 국내외 현장 불시 점검 ▶사내 그룹웨어에 재해현황 공지 등 다각도로 안전관리에 힘쓴 결과, 재해율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연말맞이 '사회공헌 미팅'

우리 회사가 오는 19일 연말을 앞두고 미혼 남성 직원을 선발해 '사회공헌 미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인 미혼 남성직원 15명과 한화호텔&리조트 여직원 15명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카페에서 '희망 T셔츠 그리기' 봉사활동을 함께 참여한 후 소통·공유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사회공헌 미팅 프로젝트'는 봉사활동과 미팅이 동시에 진행돼 미혼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Networks brace for the 'Post-TV Era'

Nov 16

College student Kim Jeong-won hasn't been watching TV lately. Even though Kim has a TV at home, he usually watches shows on his smartphone in his spare time, such as on the way to school.

Even though Kim doesn't watch TV, he is mostly familiar with the popular shows on TV because he chooses what to watch based on word of mouth. He usually goes for shows that have been talked about a lot online or on social media networks.

"For the generation I'm in, whether the content creates enough buzz is more important than the viewership rate," Kim said. "Even when the viewership rate is high, if the show doesn't create enough buzz, it wouldn't feel like something [important to me]."

He also says he doesn't care where his favorite content comes from, whether they are from terrestrial or cable channels, or from online sources such as YouTube or AfreecaTV. The name of the program, celebrities and quality of the content matters most to him, rather than who produces what.

"I have TV stations I prefer or trust, but I don't really care much about what channel I'm watching when I watch a show," he said.

"Sometimes I don't know what channel I'm watching, but I just watch what's on it."

Many younger people are breaking down divides between types of content, as no matter where it comes from, they will most likely consume it on their smartphones.

In 2014, almost 65 percent of the Korean population uses three outlets - TV, PC and mobile - to consume entertainment content, while the younger generation prefers mobile plat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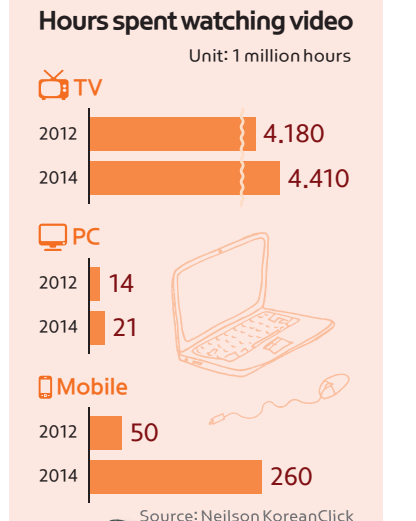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KT Economic and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in 2013, 61.8 percent of youngsters aged 10 to 19 chose mobile as their top choice for watching videos.

So the generation has been dubbed "Post-TV," which indicates that TV content has broken free from the TV platform to be widely consumed in other ways. The audience has grown used to watching shows on demand, taking in whatever content they choose based on their own schedule.

The power of scheduling programming, which was one known as a key role of TV stations, has lost its power.

Another popular trend that has been emerging is that some consumers tend to not watch entire shows, preferring to pay attention to just parts of them. This has been pointed to as another example of the weakening power of TV stations.

Currently, some TV stations compile roughly five-minute clips of their longer programs. While the TV stations consider them promotional video to attract more viewers to the programs, some have been watching only the short clips.



네트워크, '포스트 TV 시대'를 껴안다

대학생 김정원씨는 최근 TV를 시청한 적이 거의 없다. 집에 TV가 없는 건 아니지만 통학길과 같이 여유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편이다.

TV를 보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통해 무엇을 시청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웬만큼 다 알고 있다. 주로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거론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는 식이다. 그녀는 "요즘 세대에겐 시청률보다 콘텐츠에 화제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시청률이 높다고 해도 화제성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오는 채널이 무엇인지, 지상파인지 케이블 방송인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온라인 채널인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가 무엇을 만드는지보다 좋아하는 프로그램, 좋아하는 스타와 콘텐츠의 품질이 중요할 뿐이다.

"선호하거나 신뢰하는 방송사가 있긴 하지만 시청할 때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무슨 채널을 보는지는 모르고 나오는 내용만을 볼 때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젊은 시청자들은 콘텐츠의 종류로만 프로그램을 나눈다. 채널이 어디든 스마트폰을 통해 컨텐츠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오락 프로그램 시청을 위해 TV, PC, 모바일을 이용하는 시청자는 전체 인구의 65%에 달했고, 젊은 세대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10대의 61.8%가 모바일을 주 시청 기기로 선택했다.

이러한 세대를 '포스트 TV' 세대라 한다. '포스트 TV'란 TV 콘텐츠가 기존의 TV 플랫폼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모되는 것을 말한다. 온 디맨드(on demand) 방식의 시청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시청자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선택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됐다.

한때 방송국의 주 역할이었던 프로그램 편성은 그 힘을 상실했다.

일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다 보지 않고 일부 클립 시청만을 선호하는 것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 역시 전통적 방송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예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일부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5분 내외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다.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홍보용 영상이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짧은 클립만을 보는 시청자들이 있다.

▼Key expressions

word of mouth: 구전(입에서 입으로)

binge: 폭음·폭식하기

buzz: 윙윙거리는 소리, 수군거림이나 소문

Korea strikes Czech Republic deals

Dec 04

The governments and business groups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are to cooperate in nuclear power, electric vehicle and other clean energy industries.

The decision follows President Park Geun-hye's presidential visit to the country and a summit with her counterpart, President Milos Zeman, in Prague on Wednesday.

Energy ministries and the state-run power companies of both countries reach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uesday and Wednesday to start work on nuclear power projects.

"The Czech Republic's nuclear market will be a significant stepping stone for Korea to export our nuclear technology to Europ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in a statement.

In addition to an exchange of nuclear power technologies, the Czech Republic's state-run power company, Skoda Praha, will also provide technical advice to Korea Hydro & Nuclear Power to meet European nuclear standards.

Korea's homegrown APR-1400 reactor was designed based on American technological standards. Korea has been working on developing an adjusted model, called EU-APR, to meet European standards and export APR models to EU countries. The APR tailored to EU standards is currently in the assessment process and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2017.

Through the contract, the Czech energy authority will work with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n developing future nuclear energy business models, and form a consortium when entering a third market.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ersonal Question 유형

Q Do you have any plan for Christmas?

SAMPLE ANSWER

Of course, I have. I decide to go Jeju-island with my friends.

My friends and I had planned lots of vacation before, but we hadn't made it.

This time, finally we made time together. So we booked air to Jeju-island for this Christmas.

This is our first time to take a trip together, so I'm looking forward to it.

We're going to take a walk on a beach and climb the Halla-mountain.

That's my plan for this Christmas.

Thank you for listening.

Opinion Question 유형

Q What do you think about working for only part-time job rather than permanent one?

SAMPLE ANSWER

Although I have full-time job actually, I think it's not bad for having only part-time job for someone's carrer.

In Korea, many people think the part-time one is not really job for adult. They think we must have permanent one for real job.

Unfortunately, it's really hard to get a full-time job in 'real world'. There are little seat for young people in companies.

I think, getting a good part-time job is one of practical ways to get through this difficult circumstance.

Thank you for listening.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ENTERTAINMENT

Psy's 'Daddy' video gets 10M YouTube views

Dec 03: Singer-rapper Psy's official music video for his new song "Daddy" achieved 10 million views on YouTube as of Wednesday.

The newest track from his seventh regular album had already earned five million views as of Tuesday.

Three iterations of Psy appear in the video, from young Psy to Psy in his late 30s to Psy with salt-and-pepper hair.

The singer released the new album nearly three years after his previous digital single, "Gentleman."

By releasing the album, Psy said he didn't expect his new song to become the next "Gangnam Style," but he cares a lot about YouTube views because the number of hits on the world's largest video sharing site is a measure of a song's popularity.

REPORT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는 우리 회사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진출한 첫 번째 프로젝트다. 불안정한 치안, 열악한 인프라 환경 등 예기치 못한 위기를 딛고 준공한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1 27개월의 공사 끝에 지난 6월 말 준공식을 갖은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전경. **2** 주기기 STG를 설치 중인 모습. **3** 성공적인 준공을 기념해 현장과 발주처 직원들이 한곳에 모였다.

우리 현장 최고 (90)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상아빛 해안에 심은 현대건설의 DNA

열악한 인프라와 불안정한 치안

프랑스어로 'Ivory Coast(상아빛 해안)'를 뜻하는 코트디부아르.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3배 정도 크기로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카카오, 커피 등 열대작물을 수출하며 성장한 농업국가다. 하지만 2002년부터 10여 년의 내전기간 동안 무력 충돌과 유혈사태가 빈번히 발생해 유엔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Azito Power Plant 139MW Add-on Project)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진출한 우리 회사의 첫 전력 현장으로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불안정한 치안정세로 인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우리 현장은 많은 이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2013년 2월 21일 발주처인 영국 글로벌렉(Globeleq)㈜로부터 착공 통지(NTP-Notice to Proceed) 통보를 받았다. 현장은 행정·경제의 중심지인 아비장(Abidjan)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요프공(Yopougon) 지역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요프공 지역은 내전 당시 반군의 주 본거지였고, 착공 전 발전소 내 두 차례의 무장습격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현장 주변을 경찰, 군대, 유엔군이 항시 순찰하는 곳이다.

현장은 기존의 가스터빈 발전소(Simple Cycle)에 2기의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1기의 STG(Steam Turbine Generator 139MW), 1기의 ACC(Air Cooled Condenser), 기타 기전설비 시공을 통해 복합화력발전소로 확장하는 애드온(Add-on) 공사다. 애드온 공사는 추가 연료 소모 없이 발전소를 확장할 수 있어 발전비용 절감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는 추세다. 프로젝트 완공과 함께 발전 효율이 기존 29.5%에서 44%로 향상됐고, 전력 생산량도 기존 288MW에서 427MW로 증가돼 코트디부아르 국가 전체 전력 공급량을 25%까지 확장했다.

HRSG 설치가 완료된 모습.

착공 후 첫 번째 과제는 2013년 7월, 시험용 말뚝(Test Piling) 토목 시공 중 직면했다. 말뚝 선단부에서 지하수와 토사가 혼입·유입되는, 일명 토사 보일링 현상(Boiling)이 발생한 것이다. 말뚝의 품질 확보는 고사하고 콘크리트 타설조차 불가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인프라연구개발실·인프라환경사업본부·현대엔지니어링에 전사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의 원인인 Boiling의 특성을 거꾸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새 장비 반입 없이 기존장비를 개조,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몇 차례의 시험 시공과 장비 개량 후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고, 시공성 측면에서도 말뚝 생산성을 약 60% 증가 시킬 수 있었다. 현재 이 공법은 HDBP(Hyundai Displacement Bored Pile)으로 명하고, 2014년 9월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공기 사수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공정 피크 시점인 2014년 8월, 치사율 90%에 달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부 아프리카에 빠르게 확산됐다. 코트디부아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이 연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작업자들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 및 기자재 수퍼바이저(S/V)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기자재 S/V들의 무단 복귀가 이어졌다. 우리 현장은 근로자들에게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해 막연한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공사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인근 발병 국가의 에볼라 확산율이 점차 줄어들어 무사히 공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실 공사 초기부터 '적기 준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정을 쏟아부은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였다. 공사 막바지에는 ACC의 4개월 납품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배관 기자재 공급 지연 및 한 달간의 폭우로 인한 현장 작업 중단 등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겹쳤다. 공기 지연 시 당사가 발주처에 부담할 페널티 금액은 두 달 지연 기준, 미화 약 500만 달러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공기 지연의 위기는 현장엔 기회였다. 현대건설은 소형 ACC 설치 경험은 있으나 대형 ACC 공사는 아지토 현장이 처음이다. 따라서 설치방안 대부분을 매뉴얼에 의존해야 하나 4개월의 납품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우리 현장은 신공법을 고안해냈다. 각 부재의 패키지 모듈화를 통해 지상 조립으로 한번에 안양·설치하는 방안으로, 상부 철골 설치기간을 1.5개월 단축시켰다. 또한 ACC의 상부 Checkered plate 설치 역시 고소 태핑(tapping) 작업 대신 힐티(Hilti) 타정 설치로 약 2개월의 작업 기간을 단축했다.

배관 기자재 공급 지연으로 초래된 공기 만회 역시 쉽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돌관공사를 시작했다. 양손에 총 대신 공구만 들었을 뿐이지 돌관공사 기간 동안 현장은 흡사 전쟁터와 같았다. 연속적인 야간·휴일 작업의 피로는 곧바로 근로자들의 면역력 감소로 이어져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평소보다 두 배로 늘었다. 하지만 2014년 12월 28일, 우리 현장은 성공적으로 돌관공사를 완수했다. 그리고 곧이어 2015년 1월 본격적인 시운전인 'Steam Blowing Out'에 착수할 수 있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성공이었다. 계약 공기 27개월을 사수함은 물론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전 공정 무재해였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소 공사 중 계약 공기를 준수한 EPC 프로젝트는 없었다. 아지토 발전소는 현대건설의 아프리카 발전소 EPC 역사상 '전 공정 무재해'와 '계약 공기 준수'라는 대업을 이룬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다. 소장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인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중용 23장의 글귀처럼 우리 현장 전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아지토 현장은 현대건설의 이름을 드높이며 상아빛 해안에 당당히 서 있다. 우리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서려 있는 아지토 현장이 미개척된 사하라 이남과 서남아프리카 발전시장 선점에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김기완 과장

MINI Interview

前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현장소장
전력수주1팀 백철욱 부장대우

"모진 풍토병도 꺾을 수 없었던 직원들의 열정"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무에 모인다고 생각해 큰 나무를 신성시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현장 인근에 위치한 큰 나무 앞을 수시로 지나다니며 공사가 무탈하게 진행되길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바람 덕분인지 계약 공기 내 전 공정 무재해로 현장을 준공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 초기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사회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위치가 반군 활동의 중심지라 교민들이나 그 나라 정치인들도 가길 꺼려한 곳이었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늘 군인들이 있었고, 수시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순찰을 도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인프라 시설도 열악해 길에는 맨홀 뚜껑이 없어 차가 빠지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엔 동네 아이들이 비누를 들고 나와 목욕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빈민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이 말라리아를 앓았습니다. 말라리아는 운이 나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병인데, 이렇다 할 예방책도 없고 한번 걸리면 제 컨디션을 찾기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되니 문제가 컸습니다. 그 와중에 코트디부아르 인근 국가인 라이베리아, 기니 등에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돌기도 했습니다. 사상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코트디부아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아 무사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뒤로 하고 이렇게 우리 현장이 계약 공기를 준수하고, 전 공정 무재해 달성, 예산 절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입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현대정신으로 열심히 뛰어온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초보 현장소장이었던 저도 이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한 직원들 역시 그 자산을 토대로 현대건설의 큰 대들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필리핀 외국인 직원
Benjamin Chee Daham
Accounting Staff

"If you want something, work hard. There are no short cuts."

My proudest accomplishment would have to be that I help my newcomers until they learn and develop construction techniques required by Hyundai E&C. I have been working the same way for more than fourteen years. During the period that I've spent working with Hyundai E&C, I am glad to say that at least I received three citations including the Exemplary Employee Award (AONE Project, March 2004) the Outstanding Foreign Employee (KAPO Project, May 2008 - Trip to Seoul) and the Appreciation Plaque (AZITO Project, 2014·Golden Hyundai E&C Logo).

I believe Hyundai E&C is one of the best establishments because of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accomplishment of all types of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ur unique management method and full commitment make us one of its kind.

Passion and effort in the Ivory Coast

Poor infrastructure and unstable public order and security

Cote d'Ivoire means the Ivory Coast in French.

The Azito Power Plant Add-on Project is Hyundai E&C's first construction site that enabled us to enter the sub-Saharan Africa. However, concerns were raised about the area which remains unstable and has poor infrastructure.

The project was designed to convert from the simple cycle power plant to the combined cycle one consisting of two units of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one unit of steam turbine generator, one unit of air cooled condenser and other mechanical and electrical facilities. Add-on projects are getting popular because power plants can be expanded without additional fuel consumption and power generation costs can be reduced as well.

However, add-on projects require highly advanced technologies in that they involve risks of carrying out construction works within power plants in operation.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add-on projects, designs for a number of interfac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early stage of construction to integrate the existing power plant systems with new ones.

Daunting challenge of meeting the construction schedule

In August 2014, Ebola virus with a fatality rate of almost 90 percent spread fast in West Africa. Horror of contracting the disease caused a complete panic in the construction site, string workers, employees of subcontractors and equipment supervisors.

To fight against the outbreak, we provide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Ebola virus for our workers to alleviate the fear. As fortunately the incidence rate in neighboring countries increasingly decreased, we could keep proceeding the construction process without suspension of work.

From the beginning, all the employees at the construction site were dedicated to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project. However, it was not an easy task to meet the schedule in reality.

In the later part of construction, the four-month delay of ACC shipment and design changes led to a delay in the supply of piping equipment. Heavy rain that lasted for one month discontinued work at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crisis and opportunities always go hand in hand. Amid difficulties, we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within 27 months on schedule without liquidated damages for construction delay. So far, there were no EPC power plant projects in Africa that met the contract schedule. The Azito Power Plant Project became Hyundai E&C's first EPC power plant project in Africa that was completed on time without accidents. All this is attributed to the painstaking efforts of our employees at the site. We believe the Azito Power Plant Project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eoccupying the power generation market in the sub-Saharan and South-West Africa.

MARKET

건설칼럼 ⑱아프리카

지속성장하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워터프런트 전경.

아프리카는 지구 최후의 프런티어 시장으로 불린다. 그만큼 성장 및 진출 잠재력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인프라 확충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건설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김종국 실장(해외건설협회 지역2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아프리카 대륙에는 모두 54개 국가가 있다. 북아프리카(North Africa)를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47개국의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9억2000만 명이다. 2020년에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조월해 2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프리카 인구 대부분이 청년층이어서 인구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2013년 기준 아프리카 평균연령은 19.7세. 참고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평균연령은 32세다.

아프리카에서는 도시화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10년 기준 40%인 도시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58%로 증가하는 등 도시집중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하는 경제와 풍부한 탄화수소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 불안,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저성장했다. 2000년대들어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가격 급등, 각국의 정세 안정 및 물가상승 억제 노력 등으로 6~7%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 정도 하락한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산유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원유 수입국가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민간 소비가 증가해 2015년에 4%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트디부아르는 2015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 현 대통령인 와타라가 84%의 지지로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안정도 계속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에볼라 출혈열 피해 국가의 상황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0.8% 상승한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석유 확인 매장량은 2013년 기준 전 세계의 5%인 650억 배럴이며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372억 배럴로 가장 많고, 기타 앙골라 127억 배럴, 수단 50억 배럴, 우간다 35억 배럴 등의 순이다.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의 5%인 318Tcf이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5053억㎥로 가장 많고, 기타 앙골라 307억㎥, 카메룬 134억㎥, 모잠비크 126억㎥ 등의 순이다. 앞으로 석유는 지역 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은 줄고 관련 제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천연가스는 지역 내 수요 증가와 함께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가 직면한 주요 인프라 문제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으로 평가되지만 직면한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다.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전력 보급률이 16%,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전력사정이 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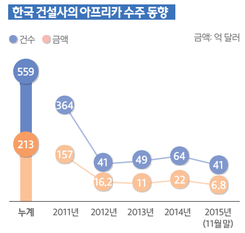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교통 인프라 부족도 주요 문제로 꼽힌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망은 아프리카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거의 마비된 상태다. 사람들은 주로 자동차 및 버스 등 육상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결과 심각한 교통난이 유발되고 있다. 물 문제 또한 심각하다. 아프리카의 수도 보급률은 매우 낮아 수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 건설사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아프리카의 건설시장 규모는 세계 해외건설 시장의 7% 정도인 652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건설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한국 건설사의 아프리카 수주 실적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5년 11월 30일 기준 아프리카 수주 누계액은 전체 해외건설 실적(7168억 달러)의 3%(약 213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주 국가도 일부 산유국에 집중돼 있어 나이지리아가

한국 건설사의 아프리카 수주 동향



전체 수주액의 절반(55%, 118억 달러)을 넘으며, 수주 공종도 플랜트(63%, 134억 달러)에 집중돼 있다.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인해 2015년도 수주 실적도 매우 저조해 전년 대비 68% 급감한 6억8000만 달러의 공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수주액의 50%(3억4000만 달러)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최근 들어 중동에 편중된 우리 해외건설의 수주 구도가 저유가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는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 건설사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로는 아프리카 전체 수주액의 36%(약 77억 달러)를 기록한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다른 건설사들의 진출 움직임도 눈에 띈다. 현대건설의 경우 우간다도로청(UNRA)이 발주한 1억2800만 달러 규모의 진자(JINJA) 교량공사를 2013년 12월에 일본 건설회사인 제니타카(銭高組)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Abidjan)에서 IPP 사업인 아지토(Azito) 발전소 확장공사(2억5000만 달러)를 2015년 6월 30일 준공키도 했다. 포스코건설도 2014년 9월에 11억4000만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에보니 IPP 가스화력발전소(2500MW) 공사를 EPC로 수주했다.

아프리카 진출 시 유의사항

통상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부정부패 및 뇌물, 드러나지 않은 예측불가능한 이해관계, 협력 파트너와의 신뢰관계 붕괴, 범죄 등이 거론된다. 진출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과 고용 및 노동문제도 사업 수행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리스크 요인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은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기술자 및 관리자는 물론 기능직 고용과 관련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령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사업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큰 관심을 갖기에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고 파악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대응만이 최후의 프런티어 시장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교육 및 보건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서구 정부와 달리 인프라가 포함된 경제·생산 부문 중심으로 차관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정부 지원 차관사업은 중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자재의 50% 이상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건설사들은 1999년 이후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약 20%를 수주하고 있다. 중국 건설사들은 주로 토목공사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원을 더욱 확대코자 하고 있다. 이는 자원 확보 뿐 아니라 생산과잉 상태인 자국 기업의 진출지로서 아프리카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FOCUS

Thank you 2015년, 현대건설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끈끈한 동료애와 가족애를 쌓은 우리 회사 직원들을 만나봤다. 글=김승희·임영현·박현희 / 사진=송성호

(왼쪽부터) 임창용 반장, 현승우 반장, 임동진 과장, 김선정 반장, 심우승 차장(파트장), 홍영선 반장, 조용석 반장.

"'우리 집' 하자보수 지킴이, MOT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객과 울고, 웃으며 끈끈해진 CS센터 MOT팀

고객의 감사 인사에 힘든 마음 사라져

"부푼 마음으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보자마자 '이곳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방문 찍힘, 타일 깨짐 등 '옥에 티'처럼 작은 하자들이 보이더라고요. MOT에 문의했더니 접수 당일 바로 모든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현대건설 MOT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 힐스테이트 위례 입주예정자 A씨

고객이 연말 감사 인사를 전해 올 정도로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MOT(Moments of Truth)'는 유명한 조직이다. 지난 해 12월 건축사업본부 'CS혁신안'에 의해 신설된 이 팀은 CS센터 소속으로 힐스테이트 준공 후 입주 초기 3개월 동안 현장에 머물며 하자보수와 고객 불만을 처리한다. 팀원은 총 11명으로 심우승 차장(파트장)을 비롯해 3명의 관리 직원과 8명의 하자보수 담당 반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 그들을 소복이 내린 눈으로 겨울의 멋이 더해진 힐스테이트 위례에서 만났다.

"신생팀이다 보니 올 한 해 남다른 각오와 열정으로 일했어요. MOT팀은 현장에 상주하며 고객과 만나요. 장기 출장도 잦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만 MOT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납니다. 실제로도 올해 고객 불만 건수가 크게 줄고, 고객 칭찬 건수도 132%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심우승 차장

MOT팀은 현재 힐스테이트 위례,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세 현장에 흩어져 일하고 있다. 워낙 큰 단지들이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 고객민원 및 하자보수 처리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 한 번 보는 것조차 어렵다. 바쁜 일상이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각자 나름의 보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올해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하나 고민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고객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두 분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도 해봤죠. 아마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만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웃음)." 임창용·현승우 반장

"문, 주방가구, 마루, 도배 등 공종마다 협력업체가 있어요. 보통 협력업체가 세대를 방문하면 본인 공종만 수리하지만 저희는 원스톱으로 다 해드려요. 그러면 '역시 현대건설'이라고 말씀하시죠. 힘들었지만 한 해 동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홍영선·조용석 반장

"협력업체가 처리해야 하는 건임에도 '업체 말고, MOT 불러줘'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도 있어요. 팀원들끼리 '우리가 너무 잘해드렸나?'라는 우스갯말도 하죠. 고객들은 무엇보다 시공사가 직접 응대한다는 것에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현대건설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죠." 임동진 과장

연말 시상식이 있다면 대상은 'MOT'

2015년 한 해 동안 고생한 반장들은 내년 상반기 CS센터 소속의 지역센터로 돌아간다. 업무 강도가 세다 보니 지역센터 AS기사들이 1년마다 돌아가며 MOT 근무를 하는 시스템. 누구보다 먼저 MOT 생활을 해 본 반장들은 입을 모아 "시원섭섭하다"고 말한다.

"반장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흘가분하기도, 아쉽기도 하다고 말씀하세요. 2015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더 웃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진 과장

"연말에 가요대상, 연기대상이 있잖아요? 자칭 올해 MOT 대상은 저라고 말해요. AS기사에서 MOT 반장으로 승진했으니 이제 남은 건 연말 대상밖에 없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CS센터 연말 시상식이 있다면 대상은 우리 MOT팀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김선정 반장

"신생팀이다 보니 파트장으로서 일 욕심을 많이 냈어요. 지역센터보다도 훨씬 업무량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불만도 많았겠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수고하셨고, 2016년에는 더욱 멋지게 일하셨으면 합니다. MOT팀 파이팅!" 심우승 차장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하나 고민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힐스테이트 위례 조형물을 배경으로 환하고 웃고 있는 MOT팀 팀원들.

"현대건설에서 일하는 우리 아빠, 참 자랑스러워요~"

호기심 가득한 두 소녀의 일산복합거점공사 현장 방문기

아빠 일터 찾은 두 딸이 전하는 감사 인사

"우와~! 올 초에 현장 주변을 지나갔을 때는 땅을 파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 보니 한참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건물이 높아졌네요. 현장에 직접 와 보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최현아양

함박눈이 펑펑 내린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의 일산복합거점공사 현장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최광 부장대우의 딸 현아(15세)와 민병섭 과장의 딸 정민(12세)이 그 주인공. 두 소녀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고생한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비정형 건물이 한눈에 시선을 끄는 이 현장은 내년 7월 준공되면 현대자동차의 테마형 자동차 전시장과 박물관, 문화예술 공연장, 브랜드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현장에서 최 부장은 조경팀장, 민 과장은 안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빠의 일터를 찾은 현아와 정민양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사무실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소녀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두 아빠는 아이들에게 단단히 안전모를 씌워준 후 현장 곳곳을 함께 둘러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상하게 설명했다. 호기심 어린 두 소녀의 질문이 이어졌다.

"저 둥근 건물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짓고 있는 건물에 들어온 건 처음인데, 아빠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겨 정말 좋아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깐 신기해요." 민정민양

"제가 아빠의 둘도 없는 평생 친구가 될게요"

대한민국 아빠의 삶은 고되다.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인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다. 최 부장과 민 과장도 예외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지방 현장 곳곳을 누비며 일한 탓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죠. 특히 우리 정민이는 요즘 사춘기라 아빠랑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장까지 와 줘서 얼마나 고맙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민병섭 과장

"우리 현아도 마찬가지로 사춘기라 시크해요(웃음). 가끔 반항할 땐 순간 밉기도 하지만 현아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현아만 보면 엔돌핀이 돌아요. 부모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딸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최광 부장대우

1시간 남짓 현장을 둘러본 후 저녁식사 시간. 두 아빠는 곧나가는 2015년을 아쉬워하며 소중한 딸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든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 한 해는 정말 뜻깊었어요. 업무적으로는 직원들이 하나 되어 노력한 덕에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또 올해의 마지막 달에 사랑하는 딸이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 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졌네요. 오늘을 계기로 둘만이 공유할 추억이 생겼어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회사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병섭 과장

'딸 바보' 아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두 소녀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일하는 아빠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다.

"평소에 아빠 얼굴을 잘 못 봐서 섭섭하고 투정도 부리기도 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아빠 모습을 보니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아빠랑 같이 여행도 많이 가고, 영화도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빠의 둘도 없는 친구가 돼드릴게요(웃음)." 최현아양

1 현아양과 정민양이 아빠와 현장을 둘러본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 민병섭 과장이 정민양에게 안전모를 씌워주고 있다.
3 최광 부장대우가 설계도를 펼쳐 현아양에게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4회 그룹사 축구대회 첫 우승, 여러분 덕분입니다!"

땀 흘리며 동료애 쌓은 사내축구단 현대FC

그룹사 축구대회 우승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인 현대FC 선수들. (왼쪽부터) 김지범 사원, 김종휘 차장, 박종영 사원, 오일선·김권수·이호원 대리.

전국에서 달려와 준 선수들께 감사

"현대자동차그룹사 축구대회 출전 5년 만에 우승을 이뤄낸 현대FC 선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근무 직원들도 많고, 경기가 평일에 진행돼 시간 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전국에서 달려와 줘 감사합니다." 김지범 사원(경영지원본부·현대FC 감독)

우리 회사 축구단 현대FC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월 2회 일요일 3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려 왔다. 그 결실로 지난 10,11월 진행된 '제14회 현대자동차그룹사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다. 11월 10일 현대파워텍과의 결승전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접전 끝에 2:1로 승리한 것.

이번 결과는 우리 회사가 현대차그룹 편입 후 대회 출전 5년 만에 이뤄낸 첫 번째 우승이라 의미가 크다. 특히 현대파워텍은 2013년 결승전에서 만났던 상대. 당시 한 점 차이로 안타깝게 우승을 내줬지만 올해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1997년 창단된 현대FC는 친목 위주의 동호회가 아닌 축구대회 출전을 위해 활동하는 클럽팀이다. 그룹사 대회 외에도 4월 지식경제부 주최 직장인 축구대회, 국토일보 주최 건설인 축구대회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다.

"현대FC는 15명의 소수정예로 구성된 만큼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더라도 충분히 받쳐줄 선수들이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현대FC를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휘 차장(건축기획실·오른쪽 수비수)

"그룹사 대회는 그룹사간 교류와 화합의 장이면서 회사의 자존심을 건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모든 팀이 승리하고 싶은 열망에 몸싸움도 매우 격렬하죠. 이번 대회 역시 숨막히는 승부의 연속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돼 정말 기뻤습니다." 오일선 대리(경영기획실·중앙 공격수)

"저는 올해 합류했는데요, 14개 그룹사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기를 휘날릴 수 있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첫아이까지 태어나 2015년은 잊을 수 없는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권수 대리(사업관리실·왼쪽 수비수)

업무 공백 메워준 고마운 동료들

사실 업무를 소화하면서 현대FC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일당백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바쁜 업무와 대회 일정이 겹치면 11명이 겨우 모여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해 그룹사 대회에서는 교체 선수가 없는 와중에 경기 중 3명이나 부상을 당해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죠. 각자 포지션이 있지만 선수가 부족하면 '만능 플레이어'가 되어 자리를 채워 나갑니다." 이호원 대리(인사실·왼쪽 공격수)

무엇보다 대회 당일에는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 부서에 미안한 마음이 크다.

"팀원 모두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대회를 위해 자리를 비우겠다고 양해를 구할 때면 죄송한 마음뿐이죠. 현대FC 활동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팀원 모두의 배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종영 사원(경영지원본부·왼쪽 수비수)

국가대표 못지않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현대FC 선수들. 내년에도 이들은 우리 회사를 대표해 그라운드를 누빌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그룹사 축구대회 우승 직후 한 컷.

Love Letter

동료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

'고맙다'. 짧은 단어지만 받는 사람 마음엔 긴 여운을 남긴다. 그동안 바빠서, 표현이 멋쩍어서 미뤄 왔던 말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 가족과 동료에게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보신문>에 도착한 현건인들의 따뜻한 메시지.

김원호 부장(사우디 두바PPP-타북-마다인 380kV 송전선로 공사 현장)이 **현장 직원들**에게

"저는 사우디 서부에 4개의 송전선로를 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2013년 11월 6일 착공해 내년 1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완공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 직원들 모두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지금까지 돌관공사를 해오고 있는 터라 직원들 모두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해온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홍근호 과장(충무실)이 **박정재 사원**(현대오토에버 건설인프라팀)에게

"먼저 박정재 사원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최근에 시스템 관리 등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급히 박정재 사원에서 도움을 청했죠. 그날이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친절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박정재 사원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늘 신경써 줘서 고맙습니다. 늘 성실한 모습 잊지 않을게요."

강예리(SARA Kang) 사원
(스페인 국적,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해양에너지연구팀)이 **팀원들**에게

My sincerely grateful to my team, Ocean Energy and especially to **최재형 부장**, **정광희 차장** and **이상휴 과장**. Thanks to them my stay here in Korea far from sweet home of Barcelona has been less hard, I feel very proud to be part of this team that puts in best efforts with strong motivation in order to make Hyundai E&C a leading global company. Working here it has being a great experience for me, Especially, their unconditional care and acceptance of who I am have deeply inspired me to work harder, I definitely feel lucky to be part of this team, Feliz Navidad!

이승연 사원(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1공구건설공사)이 **김우철 사원**(당진화력 9·10호기 토건공사)에게

"재경본부 15사번 동기 김우철 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올해 입사한 동기들은 현재 국내외 현장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요. 서로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김우철 사원은 '일 잘하는 관리 주임'이 되자며 동기들을 독려해 왔어요.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기들에게도 올 한 해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네요. 우철이형, 동기들아 조만간 모여 술 한 잔 하자!"

TOGETHER

2015년 한 해, 우리 회사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며 희망의 손길을 전했다. 〈사보신문〉에서는 우리 회사가 펼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한다. 글=이희정

3억1710만원

2015년 사랑나눔기금

올 한 해 모인 급여 끝전 금액
(2015년 12월 14일 기준)

우리 회사는 3000원부터 3만원까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정한 급여의 끝전을 모아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시작한 사랑나눔기금 누적액은 17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2839명이 참여해 약 3억1710만원을 모았다. 지난해 기금은 우즈베키스탄 카르쉬 학교 리모델링 사업,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초등학교 보건위생·수질개선 사업, 아프리카 우간다 태양광랜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다.

10개월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2기 멘토링 봉사단이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간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장기 교육 프로젝트다. 건설업 최초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멘티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에 맞춰 해당 분야 전공의 대학생, 직원을 매칭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실질적인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족한 2기 봉사단 48명은 내년 8월까지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학습 멘토링과 진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4박15일

5기 집수리로드 대학생 봉사단

임직원 100여 명과 대학생 90명이 펼친
14박15일의 대장정

우리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집수리 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5기 집수리로드에는 우리 회사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신한울원자력 1·2호기 주설비 공사 등 총 6개 현장 직원 100여 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4박15일의 기간 동안 충남 공주, 전남 진도, 경남 하동, 경북 울진 등을 돌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집수리·세탁·영정사진 촬영·벽화 그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6000여 개

사랑의 제빵 봉사

15개 부서의 359명이 빵 6000여 개를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

올해 처음으로 임직원이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활동도 실시됐다. '사랑의 제빵 봉사' 활동은 매달 참여를 원하는 부서와 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15개 부서의 359명이 6000여 개의 빵을 남산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신당지역아동센터 등 인근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했다. 이 봉사활동은 평소 접하기 힘든 제빵 활동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1006명

사랑 나눔 도시락 활동

2009년부터 1006명의 아동을 지원한
우리 회사의 대표 봉사활동

우리 회사는 2009년 겨울부터 7년 동안 '사랑 나눔 도시락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오고 있다. 우리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방학 기간 서울 종로구·중구·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결식아동의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해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학습 지도와 고민 상담 등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해왔다. 우리 회사 임직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아이들도 1000명이 훌쩍 넘는다.

325명

북촌 정화 + 벽화그리기 활동

9월에서 11월까지
북촌 단장에 나선 임직원

우리 회사는 가회동주민센터와 1사1동을 맺었던 인연으로 올해 처음 계동 인근 북촌 단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임직원 325명은 9월에서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북촌길 잡초 제거, 벽 전신주 광고물 제거 등의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재동초등학교와 창신동의 노후한 외벽에 지역 특색에 맞는 벽화를 그려넣었다. 특히 재동초등학교 벽화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려 북촌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553명

문화재 지킴이 활동

553명의 임직원이 17회 참여한
창덕궁 지킴이 활동

우리 회사는 2005년부터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창덕궁 지킴이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창덕궁 지킴이 활동'은 봄·가을 무렵 임직원의 신청을 받아 월 3회, 60여 명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553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고궁 내 창틀 청소, 화단 정리, 고건물 창호지 교체 등의 활동을 하며 문화재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2016년 2월

베트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우리 회사와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짓는
드림센터의 준공 예정일

우리 회사가 현대자동차, 국제구호개발 NGO플랜코리아,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를 짓고 있다. 드림센터는 하노이 공업대학 내 2개 건물을 개·보수해 건설안전학교와 자동차정비기술학교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내년 2월 오픈하는 베트남 드림센터는 건설과 자동차라는 서울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해외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CSV(Creating Shared Value) 사업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0명

해피무브 글로벌청년봉사단

우리 회사 현장과 연계해 파견한
해피무브 봉사자

해피무브 글로벌청년봉사단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브라질·중국 등 18개국, 6000여 명의 청년 봉사단원들을 파견하며 국내 최고의 민간 자원봉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회사는 2014년부터 해피무브 활동에 참여해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현장과 연계한 활동을 펼쳐 왔다. 올해는 스리랑카 항만공사 현장 등지에 봉사단 100명을 파견한 데 이어 내년에는 베트남 현장 인근 하노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12개국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 12개국,
16건에 달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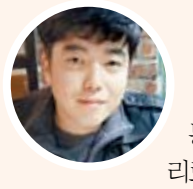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개발도상국 진출 시 현장이 위치한 국가와 연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11년 필리핀 저소득층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보고타지역 지역아동교육센터 건립, 우즈베키스탄 카르쉬 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 우간다 진자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증축을 돕는 등 제3국의 아이들을 위한 CSR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MINI Interview

올해의 '봉사왕'을 소개합니다!

12월 초 기준으로 사회공헌 마일리지 최고 순위를 기록 중인 우리 회사의 '봉사왕'을 공개한다. 바쁜 업무 중 시간을 쪼개 나눔을 실천하는 그들과의 짧은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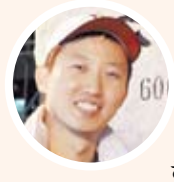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신한울원자력 1·2호기 현장 | 조형준 대리(134 사회공헌마일리지 기록)

지방 현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운데요. 올해에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헌혈 봉사와 사회복지관을 통해 간간이 나눔가게 봉사, 캠페인 지원, 집수리로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거창한 것을 찾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에 도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쌓았는데요.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늘을 꽂을 때는 따끔하지만 저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의 생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나눔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봉사활동"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 이규헌 대리(116 사회공헌 마일리지 기록)

2012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사랑나눔 도시락 활동을 시작으로 끝전 모음, 헌혈, 사랑의 빵 만들기, 벽화 그리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활동을 하며 멘티 학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보다 어린 아동, 청소년, 대학생 등과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사우 여러분들께도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COLUMN

생각의 좌표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할 때

좀 뒷북인 것 같지만, 얼마 전 요즘 뜬다는 서울 연남동에 다녀왔다. 사실 언론에서 홍대니, 성수동이니, 가로수길이니 하며 '핫' 하다는 장소들을 소개하곤 하지만, 식도락에 큰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이게 가끔 안드로메다 넘어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자리 이름처럼 들리는 터였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연남동 옛 철길 위를 걷다 보니 이곳은 식신로드의 장소를 넘어 도시 차원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 해외 도시의 그린웨이 사진을 보면서 서울 도심으로 푸른 가로수 길을 따라 걸어서 출퇴근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구도심의 변화와 철도

연남동은 예전에도 화교들이 운영하는 맛있는 중식당이 있는 곳으로 마니아들 사이에는 꽤나 알려진 곳이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게 된 것은 연남동을 둘로 나누던 경의선 철길이 사라지고 그곳에 공원이 들어서면서부터다. 다들 알겠지만, 기차는 근대가 시작되면서 찾아온 신교통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물자를 수송하고, 수탈한 미곡을 항구로 옮기고, 농촌의 인구를 도시로 나르면서 자의 반 타의 반의 근대화를 몰고 온 주역이었다. 도시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셰프 손 위에서 돌아가는 피자 도우처럼 사방으로 팽창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문제는 철도의 입지와 역할이 그 성장 속도를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전 근대 도시의 경계부에 있던 철도가 어느새 커버린 도시의 중심부, 이제는 구도심에 편입되면서 마치 애는 커가는데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것처럼 구도심의 변화를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물론 철도는 가끔 영화에서 딸랑거리는 신호음과 함께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수줍은 눈길을 나누는 연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는 배경으로도 등장하지만, 도시에서 철도 주변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철도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힌 지역에 자본이 투자될 리 없고, 그래서 낙후된 지역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자본이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재생산된다. 결국 철도 주변은 도시의 변방 아닌 변방으로 낙후되는 것이다.

철길, 도심공원으로 변화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묫자리라도 봐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철도가 변신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바다 건너 뉴욕의 하이라인을 필두로 서울에서는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된 기존 노선을 공원으로 바꾸거나(경춘선 폐선 부지 공원화 사업), 지상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고 남은 지상부를 공원으로 바꾸는(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 사업이 진행 중이다(철도부지 재활용 관련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연남동은 경의선 지하화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용산에서 홍제천까지 전체 6.3km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2016년 완료 예정인 공덕~홍대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완료됐다.

어떤 분은 철길이 공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별 감흥이 없겠지만, 여기에는 상상력을 살짝 보탤 필요가 있다. 눈을 감고 서울지도를 떠올려 보자. 구불거리는 한강이 먼저 보이고 지도 외곽으로 녹색의 산들이 보인다. 이어 도시의 회색 바다와 그 위에 남산이나 현충원, 공원들이 마치 섬처럼 군데군데 떠 있다. 여기에 도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가느다란 녹색 줄을 그어 보자.

이 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울창하게 자란 가로수들이 수 킬로미터를 늘어서서 푸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 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심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주말이면 거리에서 열리는 마을 장터와 작은 연주회, 저녁에는 불 밝힌 카페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보일지도 모른다. 긴 선형 공원이다. 주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살아 펄떡거리는 공원. 꽤 오래전에 해외 도시의 그린웨이 사진을 보면서 서울 도심으로 푸른 가로수 길을 따라 걸어서 출퇴근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서울시 지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현실이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공원을 바라보던 시선을 공원 주변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 주변의 지가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기존 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는지, 주변 건물의 밀도, 공원 주변의 차량 및 우후죽순 생겨날 간판을 어떻게 관리할지 세심한 주변부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할 때다. 우리는 제물포길 지하화, 강릉 도심철도 지하화 등 전국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이 인간의 공간으로 쓰일 기회를 적지 않게 갖게 될 것이다. 경의선 숲길 공원이 이들의 전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현호 건축가

현건인의 창 한 해를 보내며…

〈사보신문〉에서는 지난 8월 선정된 현대건설 사내 필진의 에세이를 격호로 연재합니다. 사내 필진이 전하는 글을 통해 감성의 창을 열고 편안한 마음 산책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며, 이곳에 잡혀 온 것 역시 모함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죄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한 죄'였습니다.

-영화 〈빠삐용〉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으십니까? 영화 속 주인공은 꿈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며, 이곳에 잡혀 온 것 역시 모함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죄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한 죄'였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2013년 뉴욕에서는 한 노파의 죽음이 신문에 실리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86세의 조이 존스라는 할머니는 마라톤 대회 완주를 무사히 마친 후, 마치 거짓말처럼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이미 25번 이상의 마라톤 완주 기록을 지니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달리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올 8월에는 러시아의 한 다이빙 선수의 죽음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기록을 41차례나 갈아치우고 각종 대회에서 23회 이상 우승한 프리스타일 다이빙 세계기록 보유자인 나탈리아 몰차노바가 바다에서 실종되는 믿기지 않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오리발 없이 수심 30~40m에서 헤엄치다 빠른 물살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으며, 세계 언론은 "프리다이빙에 열정을 지닌 그녀라면 다이빙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향을 향해 가다 죽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해방이다'라는 문장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일련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상향을 향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끔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이익이나 사소한 일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에는 올해도 헛되게 흘려보내버린 건 아닌지 한숨짓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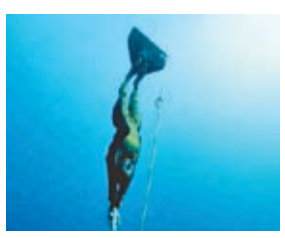
열정적인 삶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소한 발상의 전환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데에는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무의미하게 흐르는 시간을 붙잡지 못한 빠삐용이 저지른 우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또 목표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삶은 항상 흥미진진하고 깨우쳐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가 상상력 부족, 게으름, 혹은 깃털처럼 가벼이 여겨버리는 사소한 습관들로 기회를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하루 중 한 시간이라도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송골매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래 제목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빠진 하나의 조각을 찾아 '완성체'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빈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인지. 노래 가사는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 길을 나서는 동그라미의 모험이 주를 이루지만 노래를 다 듣고 난 후 저의 감상은 완벽한 원은 너무 빨리 구르기 때문에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완벽한 나를 추구하고 종종 그 이미지에 갇혀버립니다. 그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지나쳐버리기도 하고, 종종 타인의 사소한 실수조차 용서치 않곤 합니다.

어느덧 2015년을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며 자문해 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진정 내가 지키고 가져가야 하는 이상향조차 망각해 버린 채 눈앞의 이익을 좇아 또 1년을 보내버리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 자신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현대건설 사우 여러분의 2015년은 어떠셨나요?



25번 이상의 마라톤 완주 기록을 가진 86세의 조이 존스(위), 다이빙 세계기록 보유자인 나탈리아 몰차노바.

박정환 대리 고속국도 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제2공구 현장

PEOPLE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은 미소를 짓는 김요나단 신부의 별명은 '영원한 낙관론자(Permanent Optimist)'다. 국비 유학생 1호 출신 미국 공학박사에서 은퇴 후 성공회 사제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의 인생 스토리. 글=박정호 〈중앙일보〉 기자 / 사진=권혁재 〈중앙일보〉 기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구미서 '사랑고리' 운동 성공회 김요나단 신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없죠 장애인도 남 살릴 수 있어요

지난달 25일 경북 구미시 도량1주공아파트 105동 105호. 43㎡(약 13평) 크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김요나단(83) 신부가 방에 들어서자 정정기(77) 할머니가 "오빠 오셨네"라며 비닐에 싼 생강 강정을 내밀었다. 김 신부가 "아이고 쑥스러워라"하며 반갑게 손을 마주잡았다. 105호는 이곳 아파트 단지의 사랑방이다. 70~80대 노인 10여 명이 매일 모여 점심을 같이 들고, 노래와 율동도 함께 즐긴다. 공식 명칭은 '은빛둥지'. 김 신부가 이끄는 구미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다.

은빛둥지는 어르신들이 잠시 놀다 가는 노인정과 조금 다르다. 이곳에선 노인도 일을 한다. 몸이 성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친구를 도와 병원에 함께 간다. 기억이 깜박깜박 하는 동료에게 약 먹을 시간을 제때제때 알려준다. 사랑방에 오지 못하는 노인에겐 도시락 배달을 한다.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전화봉사를 하고, 주변 식당에서 쓰는 멸치를 다듬기도 한다. 김 신부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의 대표적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무료봉사? 아니다. 봉사 혹은 노동 1시간당 '사랑고리' 증표를 한 개씩 받는다. 시중 금액으로 치면 5000원, 일종의 지역화폐 비슷하다. 어르신은 그렇게 얻은 사랑고리로 동네 미용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랑고리를 다른 곳에 기증할 수도 있다. 은빛둥지 회원은 올 상반기에만 432개의 사랑고리를 만들어냈다. 날로 가팔라지는 고령화 사회, 사랑고리가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촉매제로 주목받고 있다.

구미시 사랑고리의 중심에는 김요나단 신부가 있다. 미국 공학박사 출신의 성공회 신부다. 1959년 이승만 정부 시절, 국비 유학생 1호로 미국으로 떠났던 그는 94년부터 구미에서 사제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가 설립한 구미요한선교센터도 올해 창립 20년을 맞았다. 그는 "젊어선 한 번도 사제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빚을 갚고 있다"고 했다.

Q 사랑고리라는 말이 생소하다.

미국 법률가였던 에드거 칸이 약 30년 전에 도입한 '타임 달러(time dollar)'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영국에선 '타임뱅크(time bank)'라는 용어를 쓴다. 1시간의 봉사를 1달러로 환산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봉사는 주로 베푸는 차원이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구분됐다. 반면에 타임 달러는 쌍방향이다. 호혜성에 기초한다.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 한 시간의 노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뜻이다.

Q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쉽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남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요즘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게 더 소중할 수 있다. 예로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르고, 막역한 친구를 사귀는 게 돈으로만 따질 일인가. 의사가 아버지를 돌보든, 장애인이 아버지를 돌보든 둘 사이에는 가치의 차이가 없다. 타임 달러는 사회에서,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우리 전통인 품앗이를 생각하면 된다.

Q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달라.

구미에 자살을 서너 차례 시도한 할머니가 있었다. 눈이 멀어지며 외로움이 깊어졌다. 또 류머티즘으로 몸이 굳어가는 40대 여성이 있었다. 두 명 모두 '죽고 싶다'고 했다. 40대 여성은 '나는 병신'이라고까지 했다. 그에게 부탁했다.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주고 2~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그가 한두 번 전화를 걸기 시작하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그 둘이 영적인 가족으로 새로 태어났다. 지금은 모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구미 은빛둥지 노인들이 김요나단 신부와 함께한 모습.

국비유학생 1호 출신 미국 공학박사
60대에 뒤늦게 사제로 제2 인생

성장 위주의 한국 기독교에 큰 충격
병약자 · 독거노인 보살피기 20여 년

봉사 1시간당 '사랑고리' 한 개씩
혜택 본 사람이 다시 다른 이 도와

회원 1150명 지역사회 살리기 나서
서울 노원구, 파주서도 비슷한 운동

Q 나누는 일이 거창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렇다. 현재 구미 사랑고리은행에는 1150명이 회원으로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소소해 보인다. 예를 들어 환자 돌보기, 책 읽어주기, 시장 봐주기, 차 태워주기, 정원 손질하기, 애완동물 돌보기, 편지 써주기,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치기, 합창 지도 등 사랑고리에 등록된 일만 100가지가 넘는다. 지금까지의 봉사가 주로 일회성 자선이었다면 타임 달러는 봉사가 봉사를 낳는 연속적 교환 행위에 가깝다.

김 신부의 이력은 독특하다. 서울대 공대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형 석유회사인 BP-AMOCO 연구소에서 24년 근무하며 91년 퇴직했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 트리니티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94년 미국 성공회 서부뉴욕교구 사제 서품을 받았다. 한국성공회 부산교구에 파송돼 구미에 둥지를 틀게 됐다.

Q 놀라운, 쉽지 않은 인생 반전이다.

일생을 연구소에서 살았다. 50대 중반에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생겼다. 과학자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전공 분야를 계속 살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회사에 안식년을 내고 일본 오사카대 산업연구소에 갔다. 87년 올림픽 직전 한국에 왔을 때 크게 놀랐다. 저도 젊어서부터 기독교인이었지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눈에 띄던지….

Q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인데.

서울에서 고향인 광주로 가면서 십자가를 세어 봤다. 350개까지 세다가 그만뒀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1959년 유학을 떠났을 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기독교는 성장했지만 사회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종교가 장사꾼이 된 것 같았다. 신문도 열심히 읽었는데, 먹고사는 건 나아졌지만 사회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다가왔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여생을 바치자고 생각했다.

Q 그래서 신부가 되기로 했나.

꼭 그런 건 아니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오려면 사제가 돼야 한다고 미국 성공회 주교가 권했다. 내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던 셈인데, 지금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으로 믿는다. 92년 여름 부제 시절 부산 달동네였던 반송동 '나눔의 집'에서 6개월간 목회 실습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에도 한국 사회의 가난과 직면하게 됐다.

Q 구미와 개인적 인연이 있나.

전혀 연고가 없었다.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원봉사자 교육부터 시작했다. 정부·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무의탁 환자,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보살피는 일이었다. 이후 10년간 450여 명을 길러냈다. 노인 돌봄 사업에도 눈을 돌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Q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환자든, 장애인이든 봉사를 받는 이들이 다른 사람에 기대려는 의존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받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자칫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그때 이강현 전 세계자원봉사협의회장으로부터 타임 달러를 소개받았다. 미국에 가서 에드거 칸을 만났고, 한국에도 초청했다. 사람은 누구나 각기 재능이 있고 무엇이든 남을 위해 할 수 있다는 데 눈을 떴다. 위기에 놓인 가족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실마리를 찾았다.

Q 공동체 복지 개념이다.

시장경제에만 의존하면 자본주의도 무너질 수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에서 나서야 한다. 서로 돕고 돕는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영어로 '핸디캡드(handicapped)', 즉 노인·병자 등 취약계층을 살피는 게 바로 예수를 섬기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Q 한국에 타임 달러가 정착할 수 있을까.

이미 지구촌 30여 개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파주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시작됐다. 타임 달러에는 좌도, 우도 없다.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놓고 왈가왈부 다툴 것도 없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아닌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CULTURE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크리스마스 캐럴로 괜스레 들뜨는 시즌,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공간이 필요할 터. 일상을 벗어나 성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글=안지나 〈Singles〉 피처 에디터

겨울밤 빛내는 특별한 공간 12

"공연·만찬 즐기며 성탄절 추억 만드세요"

부모님과 보내는 따뜻한 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 게이트 그릴

특별한 연말, 좋은 호텔에서 한 끼 식사로 부모님을 대접하고 싶다면 웨스틴조선호텔이 좋다. 나인스 게이트 그릴에서는 12월 24, 25일과 31일 총 3일에만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우드파이어 오븐으로 구워낸 시그니처 메뉴 한우 등심 스테이크와 신선한 바닷가재 샐러드, 포트 와인 소스를 곁들인 푸아그라 등의 메뉴를 코스로 맛볼 수 있다. 혀끝을 만족시키는 메뉴를 차례로 맛보는 사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주소 서울 중구 소공로 106 **문의** 02-317-0366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0년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말이 필요 없는 고전이다. 그 작품을 이젠 샤롯데씨어터에서 뮤지컬로도 만날 수 있다. 뮤지컬계의 베테랑 남경주, 신성우, 바다, 김소현 등이 출연해 원작 속 레트와 스칼렛의 애절한 사랑을 연기한다. 뮤지컬 공연이 익숙지 않은 부모님도 강렬한 세트와 화려한 무대 의상, 귀에 익은 듯 들리는 뮤지컬 넘버 덕분에 즐겁게 공연에 빠져든다.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577-3363(클립서비스)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오후 5시20분이 되면 수목원 곳곳이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부모님과 자연을 거닐며 색다른 빛 축제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하경정원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 빛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문의** 1544-6703

이용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토요일은 오후 11시까지)

강릉 씨마크 호텔 객실서 바다보며 힐링

동해를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강릉에 들어섰다. 고급스러우면서 심플한 내부와 훌륭한 외관은 둘째치고, 바닷가 코앞에 지어진 만큼 방까지 밀려오는 파도소리가 가장 매혹적이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 해에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가족여행 장소로 손색없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406번길 2 **문의** 033-650-7000

아이와 보내는 흥겨운 밤

오페레타 뮤지컬 판타지아

성탄절 밤, 어른과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찾고 있다면 〈판타지아〉가 적합하다. 푸치니, 베르디, 말러, 브람스, 모차르트 등 오페라의 아리아와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된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20인조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출신의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귀가 행복한 공연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 3일 전, 악당이 침입한 산타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문의** 02-588-7708

롯데월드 해피 크리스마스 대축제

크리스마스 날 따뜻한 실내에서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답은 롯데월드에 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테마로 꾸며진 롯데월드에는 흥겨운 캐럴이 흘러나온다. 하루에 두 번 어드벤처에 하얀 눈이 내리고 산타클로스와 요정의 행진을 볼 수 있는 '해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축제 분위기를 떠들썩하게 한다. 미리 선물을 준비해 산타의 집을 방문하면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아이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한다.

장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문의** 1661-2000

에버랜드 크리스마스 판타지

에버랜드의 크리스마스는 스케일부터 남다르다. 26m 초대형 '로맨틱 타워 트리'는 내부를 관람할 수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캐럴에 맞춰 눈이 휘날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와 100만 개의 전구가 환하게 빛나는 야간 '문라이트 퍼레이드'를 즐기는 사이 성탄의 즐거운 밤이 고조된다.

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문의 031-320-5000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키즈 팰리스 파티

호텔들 역시 크리스마스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할 키즈 메뉴가 포함된 특선 뷔페가 마련돼 있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에 안성맞춤. 케이크 쿠킹 클래스,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일시 12월 24일 오후 3시~9시30분

장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640 **문의** 02-3440-8000

연인과 보내는 오붓한 밤

디뮤지엄 CHRISTMAS IN THE MUSEUM

한남동의 힙한 문화 아지트가 그녀를 이끈다. 12월 5일 개관한 디뮤지엄이 그곳이다. 각 9개의 뮤지엄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라이트 아트 작품이 한데 모였다. 25일 저녁 7시에는 클래식 콘서트도 열리는데 미리 표를 구입한 사람들만 감상할 수 있다. 감각적인 전시와 공연을 맛보는 사이 조금은 색다른 크리스마스의 밤이 지나간다.

장소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디뮤지엄

문의 070-5097-0020

그랜드 하얏트 서울 프러포즈 온 아이스 패키지

로맨틱한 겨울 데이트 코스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빼놓을 수 없다. 로맨틱하게 빛나는 아이스링크의 풍경도 멋지지만 연인과 손잡고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이내 손과 마음이 따스해진다. 그녀에게 잊지 못할 프러포즈를 선사하고 싶다면 '프러포즈 온 아이스 패키지'가 있다. 링크 위에 테이블이 놓이고 그녀 앞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라이팅 이벤트가 펼쳐지면 벅찬 감동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다.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문의** 02-799-8112

JW 메리어트 동대문 딸기 디저트 뷔페

다른 커플이 흔하게 가는 장소, 뻔한 메뉴를 탈피하고 싶은 이들에겐 상큼한 디저트 뷔페가 현명한 선택. 1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딸기 뷔페는 딸기를 이용한 10가지 이상의 홈메이트 디저트와 프리미엄 티 혹은 커피가 제공된다. 흡사 1960년대 파리의 낭만적인 살롱에서 즐기는 듯 우아한 디저트 뷔페는 여심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장소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9 **문의** 02-2276-3336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고요하고 한적한 불빛축제는 연인에게 오붓한 데이트 장소로 꼽힌다. 포천의 허브아일랜드에는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산타마을이 있다.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현란한 라이팅 쇼는 놓치면 섭섭한 볼거리.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배경이 되었던 폭포정원에 가면 그녀를 놀라게 할 의외의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다.

장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47번길 35 **문의** 031-535-6494

ART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년 4월 1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자리 잡은 리히텐슈타인공국의 리히텐슈타인박물관(Liechtenstein Museum) 소장품 약 120여 점이 소개된다.

1 페테르 파울 루벤스_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초상
2 페테르 파울 루벤스_
아기 에리크토니우스의 발견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피터르 브뤼헐 2세(브뤼헐 1세의 원작)_베들레헴의 인구조사

RUBENS AND OTHER MASTERS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2015.12.12(토)~2016.4.10(일) | 1688-9891

예술로 만나는 '격동의 시대' 유럽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은 유럽 왕립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다. 박물관 명소인 '쿤스트캄머(Kunstkammer: 예술가의 방)'를 재현해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근대 비더마이어 시대에 이르는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방대한 컬렉션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전(全) 유럽의 화가'라 불리던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와 동시대 작가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루벤스는 관능적인 여성의 육체와 동적인 구도, 밝게 타오르는 것 같은 색채가 특징인 그림으로 활동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화가이면서 외교관, 교육자, 사업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전시는 작품을 통해 루벤스가 걸어온 인생을 다각도로 조망하는데, 중요 관람 포인트는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초상' '아기 에리크토니우스의 발견'과 '데키우스 무스' 연작이다.

이외에도 루벤스와 플랑드르 미술을 공유한 안토니 반 다이크, 야코프 요르다엔스, 아버지 피터르 브뤼헐과 피터르-얀 브뤼헐 형제, 네덜란드의 거장 얀 스테인, 아드리안 판 오스타드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는 종교와 정치적 대립이 팽배했던 갈등의 시대이자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새로운 시민층이 성장한 풍요의 시대였다. 예술가들이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작품을 통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루벤스, 반 다이크, 브뤼헐 등 세계적 거장의 작품들을 접하고, 리히텐슈타인 왕실이 수집한 예술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4월 10일까지 계속된다.

◆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

독일 베스트팔렌 지겐 출생. 15세에 그림을 배운 뒤 23세인 1600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 8년 동안 고대 미술과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했다. 플랑드르 총독 알브레히트 대공의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며 외교관으로도 활약했다. 주요 작품은 '마리 드 메디시스의 생애' '레우키포스 딸들의 납치'.

◆ **피터르 브뤼헐(1525~1569)**

네덜란드 북쪽 브라반트주 근방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탈리아 알프스 풍경에 감명을 받아 풍경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실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농민의 실상을 묘사해 '농민 브뤼헐'로 불린다. 주요 작품은 '사육제와 사순절 사이의 다툼' '아이들의 유희'.